

사순절 다섯째 / 새가족 환영 주일
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IN LENT

주후 2024년 3월 17일 오전 10시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35 장 “큰 영화로신 주” (통일 50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128 번 사순절 (5)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643 장 “세번 아멘” (통일 555)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한경준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렘(Jeremiah) 31:31-34, 요(John) 12:20-33	임필재 집사
찬 양 Anthem	“새물과 같은 보혈은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 (New Covenant God Makes with Israel)	김일선 목사
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	“주가 일하시네”	다같이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17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통일 353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파송 찬양 Sendig Hymn	254 장 “내 주의 보혈은” (통일 186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참된 회개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,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,

십자가는 쳐다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,

우리가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만,

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.

“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,

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”는

주님의 말씀 앞에서, 다시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,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.”

더 이상은 말로만 그치는 형식적인 회개이거나,

생각에만 머무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,

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.

그리하여,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마 7:21)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” (개역개정 렘31:33)

““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at time,” declares the LORD. "I will put my law in their minds and write it on their hearts. I will be their God, and they will be my people.”” (NIV Jeremiah 31:33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3/17 (주일)	3/18 (월)	3/19 (화)	3/20 (수)	3/21 (목)	3/22 (금)	3/23 (토)
	출29	출30	출31	출32	출33	출34	출35
본문	요8	요9	요10	요11	요12	요13	요14
	잠5	잠6	잠7	잠8	잠9	잠10	잠11
	갈4	갈5	갈6	엡1	엡2	엡3	엡4

수/요/ 찬/양/ 집/회 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찬양집회 (3/20 오후7:30)	“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나”(벧후3:2-13)
토요새벽기도회 (3/23 오전6:30)	“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”(사131:1-3)

지난 주일(3/10, 사순절 넷째 주일) 말씀

“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” (민 21:4-9, 요 3:14-21)

(일명 “Little Gospel”로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“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”)을, 개혁주의 설교자 존 파이프 (John Piper) 목사님은 ‘D’로 시작하는 네 개의 영어 단어(Design, Duty, Danger, Destiny)로 정리했는데, (이는) 이 구절 안에는 1)“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(Design)이 무엇인지?” 2)“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,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(Duty) 곧 믿음이 무엇인지?” 3)“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을 때, 직면하게 될 위험(Danger) 곧 심판이 무엇인지?” 4)반면에, “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운명(Eternal Destiny) 곧 영생이 무엇인지?”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. 즉,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,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에,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.

특히,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“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,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”(요3:14)라며, 갑자기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언급하셨는데, (이는) 1)“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지?” 를 인식하는 것과, 2)“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”는 사실과, 3)“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지만, 심판이 아니라”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러므로, 더 이상은 “자기중심성(Selfcenteredness)”이라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,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,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